

三姓神話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

李 淸 圭*

目 次

- I. 머리말
- II. 三神人과 三處女
- III. 一徒·二徒·三徒
- IV. 맺음말

I. 머리말

신화를 고고학적인 자료, 유적·유물을 통해 검증한 예는 우선 신라 초기 小國인 斯盧國 시조설화 연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斯盧 六村의 촌장과 그들이 왕으로 추대하였다고 하는 박혁거세를¹⁾ 각각 在地 마제석검·고인돌 축조

* 濟州大學校 史學科 教授

- 1) 사로국 六村長과 박혁거세 신화의 내용은 『三國史記』 1. 始祖 赫居世王 즉위조에 다음과 같이 나온다.

시조의 성은 박씨,諱는 혁거세이다. 前漢 孝宣帝 五鳳 元年 갑자 4월 병진날에 즉위하여 왕호를 거서간이라 하고, 그 때 나이는 13세 국호는 서라벌이라고 하였다. 일찍이 조선의 유민들이 이곳에 와서 山谷間에 흩어져 여섯 촌락을 이루었다. 첫째는 알천 양산촌, 둘째는 들산 고허촌, 셋째는 취산 진지촌, 넷째는 무산 대수촌, 다섯째는 금산 가리촌, 여섯째는 명활성 고야촌이란 것이니, 이것이 辰韓의 六部이었다. 고허촌장인 蘇伐公이 楊山 및 蘿井 峽에 있는 숲 사이를 바라본 즉 말이 무릎을 꿇고 울고 있어서 가 보니 말은 잔 데 없고, 다만 있는 것은 큰 알 뿐이었다. 알을 깨어 본 즉 어린아이가 나왔다. 곧 데려다가 길렀더니 나이 10여세가 되매 유달리 속성하였다. 六部 사람들은 그 아이의 출생을 이상하였던 까닭에 높이 받들더니, 이 때에 이르

집단(기원전 7-2세기)과 외부의 세형동검·토광묘사용집단(기원전 2-1세기)으로 보는 경우가 대표적이다.²⁾ 일본의 『일본서기』 神代에 나오는 개벽신화에서 神武의 조상들이 온 다까-마가-하라(高天原)를 바다 건너 한반도의 신라에 비정하고, 그들이 짚고 다니던 히로호꼬(廣矛)를 일본 야요이시대 후기(기원후 1-3세기)에 등장하는 廣形銅矛로 해석하는 설이 널리 퍼져 있다.³⁾ 이러한 연구에 비추어 알 수 있듯이, 한국과 일본에서 개벽신화의 내용을 고고학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에 대해서 문헌사학자들이 적극적인 바, 이제 탐라신화에 대한 고고학적 혹은 역사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결코 이른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고고학자들 자신은 신화적 사실에 고고학적 사실을 대응시키는 작업에 지금까지 소극적이었다. 이는 고고학 자료를 해석함에 유물 그 자체에 나타나는 것 말고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신중한 입장 때문이며, 그러한 이유로 고고학 자료를 통하여 비가시적인 사회적 변천과정을 설명하려 하는 것도 최근에 와서 이루어진 형편이다. 아울러 제주도의 신화를 조사된 고고학자료에 맞추어 보는 작업이 여전히 시기상조일 수밖에 없는 것은 고고학적 연구조사와 그 조사자료가 매우 불충분한 데에 있다.⁴⁾ 따라서 고고학자로서 갖추어야 할 신중한 학문적 자세와 현재의 제주도 고고학의 연구성과에 비추어, 금번 고고학 자료를 신화에 대응시키고자 하는 필자의 발표문은 적지 않은 문제점을 도출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만 가설적인 수준이나마, 이러한 논의의 장을 연다는 측면에서 선학들의 넓은 이해가 있기를 바란다.

러 그를 세워 임금을 삼았다. 辰人은 瓠를 박이라 하는데, 처음 大卵이 박과 같다 하여 박으로써 성을 삼았다. 거서간은 진인의 말에 왕이란 뜻이다. (김철준·최병헌편, 『사료로 본 한국문화사-고대편』, 1986.)

- 2) 이종욱, 『신라국가형성사연구』, 1982.
이현혜, 『삼한사회형성과정연구』, 1984.
- 3) 일본의 개벽신화를 고고학적으로 접근한 것은 일본인학자들의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그것을 고고학적인 입장에서 한국과 관련지어 집중적으로 연구한 저서로 북한의 김석형, 『초기조일관계사연구』, 1966.가 있다. 김석형은 1988년에 『초기조일관계사』(하), 1990년에 『초기조일관계소사』를 펴낸 바 있다.
- 4) 제주도에에서의 지속적인 고고학적 발굴조사는 10년 채 안될 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이 소규모 구제발굴이고, 집자리나 무덤유적은 거의 밝혀진 바 없다. 더욱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신화에 대응되는 시기라 볼 수 있는 상고시대의 고고학적 발굴조사는 더욱 제한되고 소규모적으로 조사되었다는 데 있다.

II. 三神人과 三處女

제주도의 탐라개벽신화 중에 고고학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는 내용은 1) 三神人の 從地湧出과 毛興穴 2) 三人의 遊獵과 三處女の 五穀種 3) 取處甘土肥處와 射矢卜地 등이다.

삼신이 땅에서 솟아 나왔다는 것은 삼처녀 집단과 달리 토착집단임을 상징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삼성혈이 그곳이라 할 때 이는 고고학적으로 동굴입구 주거 생활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⁵⁾ 동굴입구생활의 흔적은 적어도 신석기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찾을 수 있으며, 그 대표적인 유적이 조천읍 북촌리 바위그늘과 한림읍 금릉리 한들굴 유적의 예가 있다.⁶⁾ 그 연대는 방사성탄소 연대자료로 보아 기원전 10세기경이다. 그러나 혈거생활은 신석기시대 이후 탐라국시대에까지 내려와서도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고고학적 증거로는 김녕 괴내기 굴 유적의 예,⁷⁾ 문헌으로는 『新唐書』 기록을 통하여 살필 수 있다.⁸⁾ 김녕리 유적에서는 기원전 1세기경의 점토띠토기와 그 직후의 탐라시대 전기(1-5세기)의 유물이 대량 출토한다.⁹⁾ 따라서 삼성신화의 혈거생

- 5) 물론 땅에서 솟아나왔으며, 이것이 모흥혈이라는 것이 신화의 상징성으로만 이해하는 경우는 문제가 다르다. 그러나 적어도 그 상징성은 제주도의 혈거생활이 상고시대에 보편적이었음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 6) 이청규·강창화, 「제주도지방의 선사문화와 동굴바위그늘 주거지」, 『제4기학회지』 1, 1987.
- 7)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1991-93년 3년간에 걸쳐 발굴조사하였다. 보고서는 미발간.
- 8) 龍朔初에 섬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와 儒李都羅가 사신을 보내어서 입조하였다. 그 나라는 신라의 무주 남쪽 섬에 있고, 풍속은 질박하고 비루해서 옷은 개나 돼지의 가죽으로 만들어 입는다. 집은 여름에는 풀로 해인 집에서 살고, 겨울에는 굴속에서 산다. 땅에서는 오곡이 나지만, 땅을 가는 데는 소를 부릴 줄 모르며, 쇠스랑을 만들어서 땅을 판다.
- 9) 탐라시대를 기원전 5세기말을 기점으로 각각 전기와 후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후기는 고고학적으로 회색도기의 다량보급, 문헌적으로 국주의 등장과 대외조공으로 성격이 규정된다.
출고, 「상고시대 제주도문화의 연구」, 제9회 한국상고사학회 발표요지, 1993.

활이 신석기시대로부터 탐라시대, 절대연대상으로는 기원전 10세기경에서 기원후 5세기경까지 어느 시기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단정하기가 어렵다.

다음 삼신인은 수렵생활을 하는 데 반하여, 새로 온 삼처녀집단이 오곡을 갖고 온 농경집단이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이다. 주지하다시피 농경에 불리한 여건 때문에 제주도의 집중적인 수렵생활은 역사시대에도 지속되었음이 여러 패총유적에서 확인된다. 농경의 증거는 현재 실물자료가 없으므로, 단정하기 어려우나 적어도 대정읍 상모리 공렬토기 형식의 무문토기 사용집단의 유적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 추정연대는 대체로 기원전 5세기 전후한 시기로 이해된다.¹⁰⁾ 공렬토기인은 적어도 기원전 10-8세기경 한강 유역에서 벼농사는 물론 보리 등을 재배하였음이 실물자료를 통해서 여주 혼암리 유적에서 확인된 바 있다. 따라서 삼처녀가 오기 전의 삼신인의 수렵시대는 이들 무문토기 농경집단이 유입되기 전인 북촌리 신석기시대라고 하는 것이 얼핏 자연스럽게 보인다.

이렇게 본다면 북촌리 신석기인과 상모리 무문토기인을 각각 삼신인과 삼처녀 집단으로 비정할 수 있겠으나, 신석기인과 상모리 무문토기인이 신화의 혼인이 상징하는 바처럼 서로 만나 합쳐졌겠는가 하는 문제이다.¹¹⁾ 신석기인과 상모리인이 만났다는 흔적은 현재로서 북촌리 동굴 유적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북촌리 바위그늘 집자리에서는 1985년 발굴조사에 의해서 신석기시대 토기와 공렬토기가 출토하였다. 문제는 이 두개의 토기집단이 한 유적에서 동일 시기에 공존한 적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으로, 층위와 형식 그리고 필자의 편년으로는 각각 기원전 10세기경, 기원전 5-2세기경이므로 서로간에 일정한 시간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만난 구집단과 신집단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는 현재까지 거슬러 올라가 봐야 아무래도 그 다음의 공렬토기와 점토띠토기인의 경우라 생각된다.

10) 줄고, 「남한지방 무문토기문화의 전개와 공렬토기문화의 위치」, 『한국상고사학보』 1, 1988.

11)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 해석 또한 삼신인과 삼처녀의 결혼이 후대의 전혀 허구 가공적인 것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접근될 수 있다.

三姓神話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

공렬토기는 현재 상모리 이외에 광지리, 김녕리, 용담동, 북촌리 등지에서 확인이 된다. 그리고 점토띠토기는 종달리, 김녕리 피내기 동굴, 상모리, 광지리 등에서 확인된 바 있다. 앞서 공렬토기가 우리나라 무문토기 전기 양식인 것과 달리 점토띠토기는 무문토기 후기 양식으로, 그중 제주도에서 나오는 점토띠토기는 삼각구연점토띠로 기원전 1세기 전후한 시기의 것이다. 이러한 점토띠토기 형식의 토기 등의 유적은 전남 광산 신창리, 해남 군곡리, 경남 삼천포시 늑도, 의창 다호리 등지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이 점토띠토기가 제주도에서 출토된 양은 현재까지 매우 적은 편이며, 그 대부분은 태토분석을 통해 거의 한반도 남해안에서 유입된 것으로 이해된다. 유입된 이 토기 양식은 곧 제주도 흙으로 만든 원형 점토띠토기로 만들어지고, 바로 제주도식 적갈색토기에 흡수 동화되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할 때, 신화상에 나오는 수렵 토착집단과 농경 외래집단은 각각 공렬토기사용집단과 점토띠토기집단으로 대응시킬 수가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원래 공렬토기인은 남한에서 농경을 알던 집단으로, 다만 제주도에 와서 농업만으로는 식량조달이 곤란하므로, 수렵어로에 상당한 부분을 의존하였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렬토기 최초의 유적인 상모리 유적도 해안가에 입지하였으며, 제주도 공렬토기는 수렵어로활동에 치중하였던 집단임을 알 수가 있다. 점토띠 토기인들은 철기를 알고 이미 농경에 익숙해진 집단이지만, 이들 또한 수렵과 어로활동을 활발히 하였던 집단이다.

제주도에서는 역사시대에 들어선 이후도 농경 말고도 수렵과 어로에의 의존도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 제주도에서는 어로수렵단계에서 농경단계로 갑자기 옮겨 간 시대는 없었으며, 따라서 앞서 삼성신화의 관련된 내용은 수렵중심사회에서 점진적으로 농경중심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사실이 그렇다면 이는 기원전 1세기 전후한 시기에 기존 공렬토기사용집단에 점토띠토기집단이 등장한 것과 대체로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겠다.

Ⅲ. 一徒 · 二徒 · 三徒

射矢卜地하여 물이 좋고, 토지가 비옥한 곳에 자리잡았다는 신화 내용을 살펴 볼 경우 우선 토지가 비옥한 곳, 구엄-용흥-동귀동의 토양군지대를 중점적으로 살필 수밖에 없다. 제주도에서 농경이 유리한 곳으로 확인된 토양군지대는 4개의 토양군 중 이 구엄토양군이다. 이 토양군지대에서 광지1식토기 유적이 집중적으로 확인되는 바, 기원 1-5세기경 광지1식토기시대의 제주도 마을은 이 토양군 분포지대를 중심으로 퍼져 있다.¹²⁾

활을 쏘아 땅을 정하였다는 것은 마을의 생활영역을 확정했다는 것으로 현재로서 아무래도 이러한 광지1식토기단계로 비정하는 것이 가장 무리가 없어 보인다. 공렬토기 단계에 현재까지 알려진 일정 규모의 마을수준에 이른 유적은 상모리 뿐이고,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확인이 되지 않는다. 또한 사시복지할 정도로 경쟁적인 집단이 여럿 들어서 있다는 것은 더욱 이 단계 이전에 상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다음 문제는 사시복지한 지점이 어디인가 하는 점이다. 활을 쏘아 자리를 정했다고 하는 일도, 이도, 삼도의 위치에 대해서는 제주, 대정, 정의라는 설과 제주시 내라는 설이 있다. 전자의 설은 특히 「南甌博物誌」를 통해 李衡祥 목사가 이미 18세기경에 지적한 바가 있다.¹³⁾ 광지1식토기시대에 제주는 물론 대정과, 정의 지경에 유적이 없는 것은 아니며, 이 지역에는 유물산포지는 물론 고인돌 유적도 확인된다. 그러나 그 유적의 규모와 출토유물의 질적 양적 수준이 제주시는 물론 제주도 북부의 광지리나 광령리 등지에 비할 바가 못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넓게 사시복지 공간을 잡았을 경우 서로 상호 경쟁적으로 인식하기가 어렵다. 아울러 제주도 남부에서 지금까지 확인되는 유적은 중

12) 줄고, 「제주도 고대토기문화 연구」, 「호남고고학」 1, 1993.

13) 「南甌博物」誌蹟

三人射矢卜地 高所居曰第一徒漢擊山北一徒里 良所居曰第二徒漢擊右翼之南山房里 夫所居曰第三徒漢擊左翼之南土山里

그러나 이는 중세 이후 제주도를 삼읍으로 행정구역화한 사실을 소급 적용시킨 것으로 이해된다.

문동, 화순리, 강정동, 하례리, 무릉리 등에 있어서, 이를 이도, 삼도로 비정하기에는 취락의 밀집도가 미약하다.

좀더 범위를 좁혀 제주도 북부 지역에 한정할 경우, 괘지1식토기¹⁴⁾ 시기에 제주시 한천, 병문천 주변의 제주시 용담동 유적, 외도천 주변의 광령리, 외도동 유적, 금성천 유역의 괘지리 유적 등이 있다. 이 지역은 전부 직경 1~2km 이상 되는 공간에 유물산포지, 패총 그리고 고인돌 유적이 밀집분포하고 있어, 당시에 큰 마을이 들어섰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리고 서로 간에 인식의 수준이 앞서의 경우보다 높을 것임은 두 말할 것도 없다.

다시 범위를 좁혀 서로 인접하여 올라가 이끄는 마을집단으로서 경쟁적인 관계는 탐라 역사의 중심지가 되는 제주시 권역으로 한정할 때 가장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첫째는 앞서 이 지역에 병문천, 한천, 산지천이 있어서 가장 물을 얻기가 용이하고 농사에도 유리한 신화상의 甘土肥處로서 손색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이 지역에 고인돌 유적을 비롯한 괘지1식토기유적이 집중적으로 분포하여 있어 三乙那 수준의 우두머리가 이끄는 공동체가 확인된다는 사실이다. 고인돌의 피장자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른 해석이 있지만,¹⁵⁾ 적어도 고인돌을 축조할만큼의 인력동원이 가능한 마을공동체의 존재를 반영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 이러한 고인돌이 현재로는 용담동 한천변 따라서 확인되지만, 원래는 병문천, 산지천 주변에도 있으리라고 추정된다. 병문천, 한천, 산지천 변의 제주시는 그 넓이가 적어도 여러 마을이 들어설 규모가 된다. 따라서 射矢卜地한 지역은 지금 지명이 그러하듯이 예전에도 이 제주시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射矢卜地하여 형성된 일도, 이도, 삼도 마을은 일정 시간 경과한 후 이들

14) 제주도 탐라시대때 제작사용되었던 토기로 괘지1식토기와 괘지2식토기가 있으며, 이는 대체로 탐라시대 전기와 후기 것으로 이해된다. 줄고의 전개 논문.

15) 고인돌의 피장자가 chiefdoms 사회의 족장 혹은 추장이라는 설, tribe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설 등으로 엇갈린다. 제주도에서 기원후에 발전한 제주도식의 고인돌 피장자는 단순한 부족사회의 구성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전체를 아우르는 정치적 지배자로서 제주도를 대표하는 國主를 탄생시킨다. 문헌기록에 따르면 국주의 등장은 5세기경에 백제에 조공을 받쳤을 때 상황이다.¹⁶⁾ 이 때가 되면 비단 제주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큰 마을들이 대체로 제주시 세력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전까지는 분명하게 제주시의 통솔 하에 있었다고 하기보다는 서로가 각 지역의 자발적 체제로 이해된다.

이전까지의 육지와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三國志의 州胡 교역 기록이 있는데,¹⁷⁾ 이 때에는 제주도 어느 한 지역을 중심으로 교역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종달리, 김녕리, 그리고 상모리 등지에서 출토된 남한계 태토의 앞서 점토띠 토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반대로 對 육지 교역 창구도 어느 한 지역만으로 국한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것은 해남 군곡리와 삼천포 늑도에서 확인되는 제주도계 광지1식토기의 존재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중심교역지역은 제주도와 가장 가까운 전남 해안지역임은 틀림이 없다. 그러던 것이 耽羅國主 출현 이후 육지에 대한 조공활동이 활성화되면서, 冬音津 혹은 耽津縣(지금의 강진)을 중심으로 교통로가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¹⁸⁾ 물론 제주도의 관문은 제주시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IV. 맺 음 말

지금까지 신화와 고고학 자료를 연결시킨 설명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

16) 『三國史記』百濟本紀 文周王 2年 夏四月 耽羅國獻方物 王喜 拜使者爲恩率 이
를 필자는 단순히 탐라의 백제에의 부용이라는 측면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탐
라 자체에 대외적인 외교행사를 할 수 있는 정치적 우두머리의 출현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17) 『三國志』魏書 東夷傳
又州胡 在馬韓之西海中 大島上 其人差短小 言語不與韓同 皆髡頭如鮮卑 但衣
韋 好養牛及猪 其衣有上無下 略如裸勢 乘船往來市買中韓

18) 『三國史記』新羅本紀 文武王 2年(662年)
二年 二月六日 耽羅國主佐平徒冬音律(一作津)來降 耽羅自武德以來 臣屬百濟
故以佐 平爲官號 至是降爲屬國

위의 기록에서 徒冬音律을 탐라 국주의 이름으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
나, 冬音縣이 757년 耽津縣으로 바뀔 때까지 지금의 강진을 가리키는 지명
이었음을 미루어 지명으로 추정된다.

三姓神話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

을 수 있다. 朴元實은 삼치녀집단을 공렬토기무문토기인으로 보며, 射矢卜地 한 일도, 이도, 삼도를 각각 제주, 토산, 산방의 고인돌사회로 본다.¹⁹⁾ 그리고 그러한 그의 편년체계는 사로국의 발전과정과 같이 고인돌-촌장사회, 청동기·철기-小國형성시대라는 국가사회발전과정의 논리적인 틀을 갖고 있다. 머리말에서도 지적하였다시피 고고학자료를 신화에 대입시킨다는 것은 특히 제주도에서는 초보적이고도 가설적인 단계이므로, 여러 틀의 의견이 제시될 수 있음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러한 논의가 보다 활성화될 때, 제주도 고대사회의 발전과정에 대하여 보다 설득력있게 설명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19) 박원실은 현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으로서 「탐라국의 형성발전과정연구」를 준비중에 있다.